

# 文 당선... '전북 못 찾기' 실현될까

### 새만금 내부개발·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현안 산재... 도, 10대 공약 조기 사업화 대책마련 들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전북 못 찾기'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전복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과 금융·농생명·탄소 산업 육성 등을 전북의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전복을 현황에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도민과 약속했다.

또한 "전복의 특성에 맞는 발전 비전과 전략을 추진해 전복의 힘이 극대화 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전복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새만금 개발은 도민들이 눈여겨 보는 사업 중 하나이며, 전복이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새 정부에서 임기 중에 2조 7,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매립공사만이라도 정부 주도로 마무리 해주길 바라고 있다.

새만금개발은 민자유치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4조 400억원에 지나지 않아 언제 완공될지 추정하기 힘든 실정이다.

문 당선자는 새만금 전담부서를 청와대에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새만금에 신항만과 국제공항, 도로철도·수송체계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금융타운은 3000억원 이상 재정이 투입돼야 모양을 갖추 수 있다.

문 당선자는 혁신도시 중심 연기금, 농생명 금융 거점 육성을 내걸었다. 문 당선자는 "기금운용본부를 근거



지금은 개표작업 중 9일 밤 10시께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로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번째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혁신도시 시즌 2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전복의 메카인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의 도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문 당선자는 전복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키우겠다고,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론타워를 삼고 탄소밸리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추경 사업비 2,500억원의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도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당선자

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차별, 민생현대에서 전복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복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장관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으며, 차관도 4명에 불과했다.

문 당선자는 인사차별을 바로잡아 전복의 인재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는 7월 조업을 멈추기로 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당선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주장했다.

전북도도 제19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 전북도의 10대 공약을 조기에 사업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선 즉시 새정부가 출범되고 출범 시기가 국가예산 편성기간과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사업추진의 논리, 타당성 부각이 중요하다"며 "유형별 공약 중 도의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분석해 도 정책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 마련된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국민의당 호남기반 붕괴?

### '뚜벅이' 기대 안 후보, 문 후보에 2배 이상 밀려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대선이 끝난 직후 지상파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문 후보가 65.0%, 안 후보가 23.3%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대선에서 안 후보의 득표율이 문 후보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안 후보 측은 애초 호남에서만 안풍이 뒷심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했다.

당내 현역의원 대부분이 호남일 정도로 주요 지지기반인 데다가, 대선 기간 동안 호남의 밑바닥 민심이 안 후보에게 우호적이라는 자체 분석 탓이다.

또한 안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자신의 정치인생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호남지역에서 문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올 때에도 박지원 당대표 등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뚜벅이 유세' 이후 호남에서 뒤집힌 민심이 워낙 커서 문 후보를 제칠 것이라 자신했다.

안 후보는 9일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3위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은 존폐 기로에 섰다.

개표결과 안 후보가 호남에서조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위를 내주는 것으로 나온다면 당의 존폐 이유가 무너진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호남 약진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 국민의당은 불과 1년여 만에 제3당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합종연횡 이야기도 들린다. 민주당이 통합 내각을 추진하며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안 후보의 입지는 급격히 소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용 기자

## 홍준표, "무너진 자유한국당 복원에 만족"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무너진 자유한국당을 복원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SNS를 통해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이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과 자신을 지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도 "믿고 성원해주

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며 건강한 국정운영,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홍 후보는 23.3%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21.8%, 4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7.1%, 5위 심상정 정의당 후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재용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19대 대선 전북 투표율, 79.0% 잠정 집계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가 9일 오후8시로 모두 마감된 가운데 전북지역 투표율이 79.0%로 잠정 집계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이날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유권자 152만 5,626명 중 120만 5,73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과거 대선과 비교해 보면 18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75.8%)은 투표 마감한 시간 전인 오후 7시께 간신히 넘어섰고, 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63%)보다 14.2%p 상승했다. 2000년대 들어 실시된 모든 선거 중에는 가

장 높은 투표율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13대 대선에서 89.2%로 최고 기록을 남긴 뒤 14대 대선 81.9%, 15대 80.7%, 16대 70.8%, 17대 63.0% 등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 18대 75.8%로 다소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완산구가 81.7%로 가장 높았고, 덕진구 81.5%, 장수군 79.9%, 진안·완주 79.8% 순이었으며, 부안군이 74.8%로 가장 낮았다.

광역단체로는 광주광역시 82%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시와 전북 순으로 높았다.

/안재용 기자

## 文 출구조사 1위... 민주당 도당 '환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9일 오후 8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 도당 사무실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했다.

문재인 후보의 출구조사 결과 득표율은 41.4%로 2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와의 격차가 18.1%포인트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등 도당 관계자 30여명은 출구조

사 발표가 10초 가량이 남자 카운트다운을 하며 조사 결과를 고대했다.

결과는 문 후보 41.4%, 홍 후보 23.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21.8%,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7.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5.9%로 나타났다.

이에 도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연신 외치며 승리를 확인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